

힘든 이 돕더라도 스스로 이를 가능성 열어줘야

서울 개화사 주지 송강 스님



송강 스님은... 범어사에서 한산화엄 선사를 은사로 득도했다. 해인사, 부산 선암사, 묘관음사 등에서 수선하고 범어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학을 졸업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국장장과 재정국장을 역임했으며 제주 천왕사, 서울 미타사 주지를 거쳐 개화사를 창건했다. 불교방송의 '교리강좌'와 '자비의 전화' 불교TV의 '송강스님의 기초교리강좌'를 진행하며 매체포교에 앞장섰고 <금강경강설> <반야심경강설> 등의 책을 발간 보급했다.

서울의 서쪽 끝자락 개화사에 한 도인이 살고 있었다. 일찍이 이 산에 들어가 도를 닦은 그는 평생 산을 내려오지 않았다. 매년 9월 9일에 동자 두 세 명이 찾아와 그에게 공양을 올렸다. 사람들은 그를 '주룡(駐龍)선생'이라 하고 산 이름을 '주룡산'이라고 했다. 주룡선생은 이 산에서 일생을 마쳤는데, 그가 죽은 자리에 이상한 꽃이 피어 그때부터 개화산(開花山)이라 부르게 됐다고 전한다. 그가 살던 곳이 지금의 개화사(開華寺) 자리라고 한다. 삼국시대부터 전해지는 얘기다. 산 이름의 '화(花)와 절 이름의 '화(華)'는 꽃을 의미해 2004년 창건한 개화사와 천년 세월을 훌쩍 뛰어넘는 인연으로 닿아 있다.

개질 듯 푸른 하늘을 이고 행주대교를 건너 개화사에 도착했다. 김포공항으로 가는 길을 비껴나 아파트 단지를 돌아 산과 마을이 만나는 경계에 절이 있다. 주룡선생이 살 때는 깊은 산중이었을 곳. 지금은 산이 마을로 내려왔는지 마을이 산으로 올라갔는지 서로의 경계를 깨닫고 원용의 도량을 일구었다. 오후 2시의 가을 햇빛은 찬연한데, 무량수전 안에서 기도하는 불자들의 얼굴이 그 빛을 닮아 있다.

개화사는 100일 만에 지은 절이다. 그렇게 빨리, 이렇게 정갈한 도량 하나를 열었다는 것을 쉬 믿을 수 없다. 별난 비결이라도 있었을까?

"여러 사정이 있긴 했지만, 승속이 둘 아니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듯 매달리니까 가능하더군요."

송강(松江) 스님의 원력과 불자들의 합심이 비결이었다. 작은 듯 하면서 크고 큰 듯 하면서 포근한 당우들, 좁은 땅을 넓게 쓰면서도 동선(動線)을 합리적으로 배치한 지혜는 답이었을까?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도량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도량은 외형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다. 누가 찾아와도 저절로 마음의 집을 내려놓게 되는 기운이 느껴져야 한다. 개화사 무량수전 마당에 서면 그런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안방 같다.

한 달에 15회 이상 법회가 열리는 절, 언제나 대문과 법당 문이 열려 있고 주지 스님을 만날 수 있는 절이 개화사다. 상담실에는 언제나 열은 전단향이 서려 있다. 하지만 코끝에 맴도는 향기는 두 번째고, 첫 번째는 마음에 법향을 쏘여주는 송강 스님의 말씀이다.

스님의 말씀이 향기로운 이유는? 불교방송과 불교TV에서 강의를 하면서 '스타' 반열에 올랐던 이력 때문이 아니다. 언제나 객(客)의 입장을 헤아려 듣고 말하는 수단 때문도 아니다. 어떤 경우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준거(準據)한다는 원칙, 그 하나의 원칙이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그 법향의 발원은 송강 스님이 아니라 부처님이라 해야 옳겠다.

"종교는 그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을 때 가장 종교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철학이지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이 종교니까요. 그렇다고 과학기술이나 문물제도를 이끌고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복지를 예로 든다면, 종교가 복지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는 기업이나 재벌들이

복지에 힘쓰도록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특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치도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불교가 아닙니다. 소위 방편이라는 것을 빌미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닌 것을 도입하여 합리화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입니다. 방편도 가르침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강 스님은 다양한 강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전공부와 선어록이 중심이지만 교리문답이나 다도 같은 소프트한 모임을 통해 어렵지 않은 불교, 생활 속의 불교를 실천하는 길을 열어 준다.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르고 근기와 자질이 다른데, 특정한 곳으로 따라오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개인의 자질에 따라 공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고 소통하는 곳이 절이고 그 길을 안내하는 것이 주지(住持)의 소임 아닙니까?"

주지의 소임, 참으로 어려운 말이다. 수행의 알맹이에 해당하는 이(理)에도 밝아야 하고 종무행정을 비롯 사찰 운영 전반의 업무도 잘 처리해야 하는 일이 주지의 소임이다.

세상에서는 이관과 사관을 나누지만 원래 둘이 아니다. 이관과 사관을 한 관이다. 그 하나를 가장 잘 이끌어가는 사람이 주지인 것이다. 법회 때마다 법문을 통해 새로운 느낌을 갖도록 하여 쌓이고 쌓

바깥출입 자제하며 강좌 진행상담에 전력
불자들과 원력모아 100일 만에 도량 창건
한달 15회 이상 법회 열고 법당 개방해
부처님 가르침에 준거한다는 원칙 지켜

인 느낌들이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한다. 선어록 공부로 스스로 의심을 일으키게 한다. 의심이 있어야 답도 있다. 재일 법회에서는 기도를 통해 자기 변화의 힘을 얻고, 예참을 통해서도 아만심과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게 한다. 송강 스님은 그 모든 법회를 주관한다.

"주지의 주(住)는 머문다, 거처한다는 뜻이고 지(持)는 가진다, 지킨다, 보존한다, 유지한다 등의 뜻이지요. 주지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절에 머물면서 도량과 대중을 지키고, 수행과 수행을 견지시키고, 의식과 의례를 유지 보존하는 소임입니다. 요즘 절에 있는 시간 보다 밖으로 다니는 시간이 더 많은 주지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는 바깥일을 최대한 억제하고 절에 주지합니다. 개화사 주지니까 개화사에 주지해야지요."

개화사에 처음 발을 들여 놓으면서 안방 같은 느낌을 받은 까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도심 사찰(포교당)이 생겼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성이

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기 때문에 문을 닫는다. 전법보다 경제적 타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일 것이다. 돈 앞에 원력이 굴복 당했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일까?

올곧게 정법을 전하는데 몰입하면 도량이 지켜진다는 것을 개화사는 잘 보여주고 있다. 부처님과 역대조사들의 가르침에 입각한 공부하는 도량으로 자리매김 해 왔기 때문이다. 물론 항상 절을 지키며 불자들과 소통해 온 주지 스님이 그 중심에 있다.

"불자들이 공부하는 것은 꺼리고 기복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복이라는 말을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기복에 관심 없는 사람이 종교를 찾아오겠습니까? 힘들고 답답한 사람에게서 우선 그 힘들고 답답한 것을 풀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어떤 방법을 쓰느냐에 있습니다. 스스로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스스로 집을 벗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참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3천배를 시킨 것은 다 까닭이 있어서였어요."

결국은 방법의 문제다. 성문승과 연각승, 보살승이 일불승으로 나아가는 단계처럼 각자의 근기와 자질에 맞게 공부하고 느끼고 깨달아 그것을 삶의 내용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불자의 삶인 것이다. 그래서 송강 스님은 "가장 불자다운 삶은 가장 부처님다운 삶"이라고 정의한다.

"부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 안에서 자기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없이 복잡다단한 세상일들을 어떻게 풀어 낼 수 있겠습니까?"

도심 사찰의 주지는 1인 10역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생이 부처님을 만나게 해 주는 일일 것이다. 법연(法緣)을 맺어주는 일보다 요긴한 소임은 없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법론, 전문화가 필요한 것이다. 선을 통해서, 염불을 통해서, 경전공부를 통해서, 사경을 통해서 등등의 방법으로 중생과 부처님이 즐거이 만나 행복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세속의 모든 논리는 욕망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욕망을 벗어 놓고 그 이전의 자기를 만나라고 강조한다. 6조 혜능 대사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라"고 했듯이, 송강 스님이 강조하는 불자의 삶도 바로 욕망 이전의 자기를 회복하는 길이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욕망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 물질문명이 발달하면서 종교에 귀 기울이는 사람보다 눈앞의 이익을 탐하고, 물욕의 충족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늘고 있다. 그래서 점차 종교인구가 감소하고 종교인들의 삶마저 물질만능에 젖어 가고 있다.

"세계적으로 탈종교화 분위기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가 '마음의 고향'이 되지 못하면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발달해 가는 세속의 쾌락을 제어할 힘을 잃으면 종교의 기능은 마비되고 세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불교도 잘 살펴보면 이미 많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국내특허 제0751485호
세계특허출원 PCT/KR2007/006534

사찰, 포교당, 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사찰 전기공사 상담대환영
사찰 리모델링 상담대환영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상담전화 02)471-235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

여래원 천연 초제비누
아토피·건선·고질적피부병

"아토피(피부병)는 불치병이다???"
"세상에 나올 수 없는 피부병은 없습니다. 6년여의 효과적 임상실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여래원 해파스님의 6년여 임상을 거쳐 탁월한 치료효과가 검증된 약제 비누입니다. 불치병이라 생각하는 아토피(피부병)를 풍부한 임상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질한 개선을 불자님 눈으로 직접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재료 : 서자초, 홍난석화, 초유평, 종려초, 용부향, 하로근 등 천연생약 30여종 (중화제, 방부제, 인공향유, 인공색소 등은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 ◎ 천연연고비누 효과 : 아토피, 각종 습진, 피부병, 건선, 두피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질환 개선과 치료.
- ◎ 사용방법 : 전신에 1~2회 마사지 하듯 골고로 발라준다. 타올로 꼼꼼히 문질러서 각종 노폐물과 각질을 충분히 제거한다. 목욕 후 일체 아무것도 바르지 않는다.
- ◎ 보관방법 : 사용상 편의를 위해 비누처럼 굳혔기 때문에 수분에 약한 성질로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습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별도의 보습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 직접 방문하시면 1회에 한하여 무료치유 체험실는 방법 시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하시면 6년간의 효과적 임상실험 책자를 직접 보내드립니다.

※ 다음카페 '아토피제험방' http://cafe.daum.net/yeoraewon

여래원 천연 초제 비누

여래원 원장 해파 합창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전화 02)429-5093 / 010-8875-5454

미얀마 관광청 승인

부처님 찾아 떠나는 여행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단 2회, 출발일 : 11월 8일, 11월 29일 양곤 | 바간 | 헤호 6일 1,640,000 추가 경비 없음

- ★ 양곤 | 바간 | 짜익티오 5일 1,400,000 (추가경비포함)
- ★ 양곤 | 헤호 | 바간 | 짜익티오 6일 1,690,000 (추가경비없음)

관광청 승인 이벤트
겨울 성수기 미얀마 조기 예약 할인

- 양곤 | 바간 | 헤호 5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6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헤호 7일 (요금문의)
- 양곤 | 바간 | 만달레이 | 짜익티오 7일 (요금문의)

* 불포함 : 유류세 200,000, 가이드+기사 팁

- 지장/관음 도량 구화산 | 황산 | 보타산 7일 1,290,000원
- 지장도량 구화산 | 황산 5일 990,000원
- 마음은 다시 티벳으로 티벳 8일 문의
- 항공일정 티벳 6일 1,590,000원

* 불포함 : 유류세 가이드+기사 팁

순인도 골드트라이 앵클 완벽 8대성지 13일 초특급 259만원
순인도 베스트 상품 완벽 8대 성지 9일 초특급 239만원
순부탄 왕국 시립 다르질링 11일 요금문의
순빙곡 / 파타야 5일 요금문의
순장사 / 장가계 + 천문산 5일 요금문의

* 전화 주시면 요금 및 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종교성 관련 불교성지 전문여행사

(주)에스큐 마하연투어 ☎ 02)365-7747
[미얀마, 중국, 스리랑카, 인도, 티벳]

가르침 벗어나면 불교 아니다



송강 스님이 개화사를 찾은 이종남 신부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다. 송강 스님이 말하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에는 불교도 가톨릭도 구분이 없다.

은 부분에서 세속화 되어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세속화. 오늘날의 모든 종교가 간과하고 있는 단어 중의 하나다.

오늘날의 모든 종교가 가치를 상실하고 외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단어에 들어있다. 이제라도 모든 종교가 정신 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와서 경고하는 단어다.

송강 스님은 “절이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이 세속화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세속에서 탈속을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절의 기능이기 때문. 본질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타협하다보면 어느새 높은 가르침을 이끌어 가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편만 남는다는 것이다. 따듯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무쇠는 제 몸에서 나온 녹으로 쇠하고 사자는 제 몸의 벌레로 인해 죽습니다. 불교가 종교로서 묵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다 불교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흉내 낼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 가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편만 남는다는 것이다. 따듯한 말이 아닐 수 없다.

불자들은 역시 주변 사람에게 따듯하고 넉넉한 품이 되어야 한다. 배고픈 이에게 밥을 나눠주고 헐벗

세속의 쾌락을 제어하게 종교 본질

오늘날 종교 가치 하락 원인은 세속화에 부처님처럼 살기는 따뜻한 인심에서 시작

도심사찰은 불자들 보듬는 엄마 품 같아야

은 사람에게 웃을 나눠주는 사람. 부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보살이다.

“본래무일물(本來無一物)이라는 신념 하나만 있어도 보살행을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본래 없는 것이어서 내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탐욕과 집착도 없을 것입니다. 고집멸도(苦集滅道)란 집착하여 고가 생기고 정도를 행하여 고를 멸하는 길을 밝힌 것이 아닙니까? 이론적으로는 잘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겠지요?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본래정정한 자신을 믿는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불교는 지혜와 자비의 종교입니다. 보살의 상구부리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화중생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이판과 사판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 사는 자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지혜와 자비의 구조이므로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본

래무일물, 청정자성의 진면목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송강 스님이 말하는 ‘부처님처럼 살기’는 바로 청정자성의 깨침이다. 그것이 행위의 신념으로 표현된 말이 본래무일물이다. 탐욕을 일으킬 그 무엇도 본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뉘고 또 뉘아 점차 나아가기를 거듭해야 마침내 도달할 수 있는 자리다.

절마다 주지는 있지만, 한 점 부끄럼 없이 그 소임에 충실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그 원력만으로도 도량에는 신령한 기운이 넘친다. 어느새 사각(斜角)으로 비치는 햇빛에 무량수전 앞마당이 그윽한데, 그 마당 어귀에 반가운 손님이 도착했다. 인근에 위치한 발산성당의 라이문도(이종남) 신부님이다. 가끔 만나는 사이지만, 무척 오랜만인 듯 아주 환하게 인사를 나눈다. 안이 청정하면 바깥도 밝은 법. 주련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송강 스님과 그 뜻을 경청하는 신부님의 모습에서 ‘본래무일물’의 한 단면을 읽었다.

문득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그 옛날 이 터에 살았다는 주홍선생도 저렇게 아름다운 만남의 순간을 가졌을까?’



임연태 (사인 본지는설위원)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오로봉(五老峰)

전철을 이용하다 보면 일반석과 경로석으로 대별이 된다. 비단 출퇴근 시간이 아니라 해도 경로석은 빈자리가 잘 나지 않는다. 아마 노인 인구의 증가에 연유하기도 할 것이다. 노인만이 아니라 장애인·임신부 자리까지 허용하다 보면 자리는 더욱 모자라기 쉽다. 그 자리에 표기된 영문을 보면 Senior men 이라고 쓰여 있다. 연세 든 분들이 노인이란 말을 꺼려 한 나머지 이렇게 불린 것으로 안다.

노인의 늙은 로(老) 자는 늙었다는 뜻만이 아니라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익숙하다’던가 ‘노련하다’는 뜻도 있으며 ‘신하의 우두머리’를 말하기도 한다. 노인이라는 말이 별반 어색하지 않은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잡마경(雜摩經)) 권상에 부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특징 있는 열 명이 나온다. 지혜제일 사리불 존자에서 다문제일 아난다 존자에 이른다. 유독 이 제자들에게 존자(尊者)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붙이고 있다. 범어로 존자를 sthīrvira라 한다. 노인이란 말이다. 남자는 70세부터이고 여자는 50세부터 존자라고 부른다. 90세가 되면 마침내 이런 호칭은 끝난다. 그 후에는 varshīyas라 부른다. 발시아스는 세 살된 아기를 말한다. 덕이 있어 존경할 만한 사람만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단순한 경칭으로 쓰기도 하고, 연하의 사람에게는 사용하였던 것이다. 나이 먹으면 어린이가 된다는 말도 우리나라만의 표현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우리말에도 선생이라고 하면 교단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 대한 경칭으로 곧잘 부르기도 하는 말이다.

(벽암록) 제34칙에 양산선사가 여산에서 왔다는 한 객승에게 “그럼 오로봉(五老峰)에는 가보았겠군”이라 묻고 있다. 이 오로봉은 양자강의 아홉 개 지류가 합하고 있는 여산의 오로봉을 말한다. 혜원(慧遠)스님이 백련사(白蓮社)를 세운 이래 불교사상의 요람이 된 산이다. 시선(詩仙)이라 불리는 이백(李白)이 망오로봉(望五老峰)이란 시를 남길 정도로 풍광이 좋고 조망이 뛰어난 곳이다.

여산동남오로봉 廬山東南五老峰
청천삭출금부용 靑天削出金芙蓉
구강수색가람결 九江秀色可攬結
오장차지소운송 五將此地集雲松

여산 동남쪽의 오로봉이여
푸른 하늘에 금색 연꽃이 불쑥 솟아 있구나
구강에 빼어난 경치를 모두 모아 놓았으니
내 장차 이곳에서 구름과 소나무를 벗 삼아 살리라

물론 양산선사는 단지 오로봉의 경치 좋은 것만을 말하지 않았다. 완전한 불성(佛性)을 갖춘 경지인 오로봉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다섯 개의 늙은 봉우리는 각하(脚下)의 참된 세계를 말하며, 선의 입장을 오로봉에 빌어 말한 것이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등산하는 사람들을 본다. 건강을 위해서 걷는다고 한다. 걷는다는 것이 오직 건강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건강은 형이상학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그렇다 면 형이상학의 문제는 제쳐둔 처사가 아닐까. 아프리카는 고대 이집트어로 고향이라고 한다. 인류의 고향 아프리카의 마사이족이 걷기를 잘하는 것은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형이상학적인 영혼의 문제를 더 중요시 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기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서 주변을 해치지 않고 살고 있다.

늙은 로(老)는 노련함을

존자의 의미는 노인

<벽암록>의 오로봉은

완전한 불성의 경지

파괴자는 문명의 이기를 누르고 살았고 여기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다. 아프리카인들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상대에 대한 배려를 가슴에 품고 사는 것이다. 상대의 대상은 사람과 사람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소통도 따른다.

남산 걷는 길에는 인공수로가 있어 청아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어 더욱 좋다. 수로에는 조약돌을 깔아 놓았다. 짙아 높은 생방 같기도 하고 어린시절에 빛이 보았던 주먹만한 송편마냥 친근감이 간다. 저 물들은 고향을 찾아 왔구나. 태고적엔 깊은 산에 있다가 세월의 다정한 설득에 굴복당하여 계곡에 머물다가 마침내 강으로 흘러갔다. 이제 누군가의 주선으로 고향을 찾았다. 그러나 산은 옛산이려면 조약돌에게는 낯선 이방인이 된 듯하다. 산이 그 높은 가치를 잃지 않고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은 산의 변함 없는 속성 때문일 것이다.

돌이켜 보면 그렇게 대단하게 여겨지던 것들도 세월의 다정한 유희와 설득 앞에서 퇴색되고 굴복당하고 만다. 서술이 퍼렇던 경색된 이념도 탈냉전의 종식 앞에 무기력 해지고 말았다. 조상들이 소중히 여겼던 전통문화도 세계문화의 교류 앞에서 탈색되기 일췌다.

오로봉의 참된 세계에 들기 위해 형용어인 영혼에 빚짓을 하자.

天氣福

학재의 신간

백초스님의 다라니방편부

신묘부주밀법총해

일반적인 부적책이 아닙니다!
옛날부터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남이 알려주지 않는 비법이라는 방편법을 방편물과 방편을 하는 법들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귀신이 붙었든, 조상이 탈이 났든, 인간에게 그 어떤 고통을 안겨주는 부정하고 사악한 기운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속히 제거해야만 뜻대로 생활할 수가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누구나 그러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요즘 귀신이나 잡귀들은 예전의 방식대로 부적이나 비방법을 쓰면 잘 내쳐지지가 않는다. 귀신도 피가 많아지고 약삭빠르려 간악해졌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신력과 벽사 방편법으로 다루어야만 확실하게 퇴치할 수 있다.

이 책에 소개된 밀법총해는 티베트밀교와 일본·중국·한국의 불교와 무교에서 비밀리 사용하는 진언과 부적을 총집결하여 만든 방편부의 총서이다. 구전으로만 전해지던 양법과 벽사법과 퇴마법 등을 최대한 수집해서 기록하였고, 또 일반 목적으로만 처방이 어려웠던 부분을 강력한 神力을 합일시켜 소원하는 일들을 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론까지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著者 白超 백초스님
특수양장본 / 타블로이드판 257×364 / 536쪽 / 정가 380,000원

금강주술방편연구회
041) 943-6882 / 010-2002-6332

입금계좌 (예금주: 임현주)
농협 023-02-500940
신한 010-6413-4443

불교성지순례 전문 인더스투어에서 대장경 천년 세계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수도권 시민들이 편하게 축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민족문화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대장경 축전 프로그램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industour
인더스투어

대장경 천년
세계문화축전 참가안내

출발일: 축전기간 중 매주 수요일, 토요일 총 13회 출발(서울)
9월 : 24(마감), 28(마감)
10월 : 1(마감), 5(마감), 8(마감), 12, 15, 19(출발확정), 22(출발확정), 26, 29
11월 : 2, 5

참가비: 성인 55,000원 P/P, 아동 50,000원 P/P

포함내역: 왕복버스비+중식(이화장정식)+주행사장입장료+합천영상테마파크+해인사+여행자보험

문의: 02)2252-3226, 2252-8226, 722-4028

담당자: 이명균차장, 정경미 사원

불교성지순례의 새로운 이정표 인더스투어 www.industour.com

인더스투어는 2010년 인도 문화관광 및 불교성지순례 전문으로 새롭게 출범한 여행사입니다. 저희 인더스투어는 국내 최고의 인도, 지역 전문 여행사로써 다양하고 알찬 여행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다 섬세한 일정,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행사, 힐링투어를 비롯한 새로운 획기적인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인도여행의 이정표가 되고자 합니다. 특히 부처님의 눈물겨운 여정을 직접 찾아가는 성지순례상품은 그 어떤 순례보다도 편안하고 알찬 순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의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불교성지순례 문의 02)2252-8226 담당 손태호 이사